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104-113,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1.10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Yeong-Hee Kim
Jinju Health College Nursing Department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였다. 대상자는 일개 간호대학의 1학년 총 345명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조사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전체 평균평점은 2.91(±0.52)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79(±0.60)점, 전공 만족도는 3.55(±0.47)점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남학생 군(p=.004), 입학동기가 높은 연봉 군(p=.027), 교우 관계에 매우 만족 군(p<.001), 성적은 평점이 4.1이상 군(p=.005)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남학생 군(p=.040), 입학동기가 해외진출 군(p=.047), 향후 진로가 보건교사 군(p=.015), 교우 관계에 매우 만족 군(p=.014), 성적이 4.1이상 군(p<.001)에서, 전공만족도는 입학 동기가 높은 연봉 군(p=.004), 교우 관계에 매우 만족 군(p<.001), 성적이 4.1이상 군(p=.002)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p<.001), 전공 만족도(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 만족도(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전공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설명력은 23.1%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접근전략의 개발과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re were 345 345 nursing freshman between November 30 and December 4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an score of the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as 2.91(±0.52), 2.79(±0.60), and 3.55(±0.47). The college life adaptation related with male group (p=.004), entering motivation (p=.027), friendship satisfaction (p<.001), first semester grade (p=.005), and academic self-efficacy related with male group (p=.040), entering motivation (p=.047), desired work (p=.015), friendship satisfaction (p=.014), first semester grade(p<.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elated with entering motivation (p=.004), friendship satisfaction (p<.001), and first semester grade (p=.002) all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r=.223, p<.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342, p<.001).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218, p<.001). Department satisfaction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college life adaptation.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3.1% of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college life adaptation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was correlated with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Moreover, to increase the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Keywords : Academic, Adaptation, Self-Efficacy, Satisfaction,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Jinju Health College)
Tel: +82-55-742-1224 email: gyumdung20@naver.com
Received July 28, 2016 Revised (1st August 22, 2016, 2nd September 19, 2016, 3rd October 12,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대학생활의 시기는 향후 사회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숙하게 감당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다[1].

대학 신입생 시기는 대학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2], 간호대학 신입생들은 간호학 학문의 특수성과 학과 공부의 어려움이나 적성 문제로 신입생 시기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학습으로 학업적 부담감이 과중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3-4]. 또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간호학과 입문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며, 향후 원하는 진로는 병원취업이라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4,5], 이미 직업결정을 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러한 취업률만을 고려한 입학 동기와 간호 전문직에 대한 성찰 없이 곧바로 직업을 갖게 되고 전공 교과에 대한 학습 부담감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즉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대학 교육의 효과 감소 및 대학 경쟁력 저하 등 대학의 문제로 비화될 수 도 있으며[2], 국가적 차원의 인재 개발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1],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에서도 직업에 대한 간호전문직 태도를 형성하고 올바른 간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최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은 간호학생이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여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과 및 직업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간호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다[6]. 이는 간호사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6],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적 개념인 학습촉진의 주요 변인으로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간호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8], 학습 환경 설계시 학습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간호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9]. 간호대학 신입생이 미래 간호사로서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대학생활 적응을 해야 할 것이다.

전공 만족도는 특히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간호 전문직관 확립과[8,10] 추후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도 관련되어[11] 간호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념과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주며[12], 졸업 후의 진로 뿐 아니라 직업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전공 만족도는 향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주므로[1,8,11], 간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 신입생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많은 관련 변인들로 자아존중감, 극복력, 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인임이 제시되었다[1-5,8,11-17]. 그러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유의한 변인 중에 간호 핵심역량 함양과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과 관련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 관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신입생 입학 초기로 국한되어 대학생활, 대학의 교과 과정, 전공에 만족했는지 파악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이 간호학 전공 선택 후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 및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공된 1년간의 교육 과정 후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정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년간의 대학 생활을 지낸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별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일 대학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부 1학년 재학생 전수(359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최소 169명 이상으로 나타나 359명 중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345명(96.1%)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학년 종강 1주일을 앞둔 시기인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 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철회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각 강의실에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각 층별로 학생 휴게실에 위치한 수거함에 자율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과 관련된 대학생활과 대인 관계나 활동 등의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 학생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감을 전반적으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18]. 대학생활 적응은 Baker과 Siryk[18]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Park[19]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대학생활 적응 척도(Revise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RSACQ)의 도구로서 5개의 하위 영역(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관한 애착)으로 분류되며, 총 25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14)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bach's α는 .93이였고 본 연구에서 Chrobach's α는 .94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습 과제를 기대되는 수준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학습자의 지각된 신념을 의미한다[20].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01)의 도구로서 3개의 하위 영역(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분류되며, 총 28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Chrobach's α는 .84, 자기조절 효능감 Chrobach's α는 .76, 자신감 Chrobach's α는 .74였고 본 연구에서 Chrobach's α는 .94이었다.

2.3.3 전공 만족도

전공 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고 인지, 감정들의 복합체이며,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21]. 전공 만족도는 Braskamp, Wise & Hengstler(1979)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과 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한 Ha(1999)[22]의 도구를 Song[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서 4개의 하위 영역(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으로 분류되며 총 22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bach's α는 .92였고 Song(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bach's α는 .91였고 본 연구에서 Chrobach's α는 .94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구했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제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는 ANOVA 및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구하였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문 대학의 수업 연한 4년제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으로 한정되어서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다. 또한 1년간의 대학생활 중 종강 1주일을 앞두고 실시한 연구 결과이므로, 확대 해석 할 수 없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83.5%), 입학유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50.1%), 입학 동기는 취업을 원해서(38.8%), 향후 원하는 진로는 병원 간호사(72.2%), 종교는 없다(70.1%), 연령은 20~25세(90.4%), 교우관계 만족도는 만족(45.5%), 1학기 성적은 평점 3.1~3.5점대(35.1%)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5)

Spec.		N	%
Gender	Male	57	16.5
	Female	288	83.5
Type of Admission	Special quota	173	50.1
	Special extra quota	61	17.7
	General quota	76	22.0
	Genera extra quota	35	10.1
Entering Motivation	Employment	134	38.8
	Profession	112	32.5
	Longing	47	13.6
	Recommendation	33	9.6
	According to grade	5	1.5
	Overseas expansion	8	2.3
	High Salary	6	1.7
Desired Work	Hospital nurse	249	72.2
	Health care teacher	18	5.2
	Public official	28	8.1
	Entered graduate	11	3.2
	Overseas	24	7.0
	Etc.	15	4.0
Religion	Yes	103	29.9
	No	242	70.1
Age	20~25yr.	312	90.4
	25~30yr.	17	4.9
	31~35yr.	9	2.6
	36~40yr.	3	0.9
	41yr.	4	1.2
Friendship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0	2.9
	Dissatisfaction	13	3.8
	Moderate	102	29.6
	Satisfaction	157	45.5
	Very satisfaction	63	18.2
First semester grade	3.0 ↓	102	29.6
	3.1~3.5	121	35.1
	3.6~4.0	85	24.6
	4.1 ↑	37	10.7
All		345	100

3.2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전체 평균평점은 2.91점으로 영역별로 가장 낮은 영역은 학업적 적응 2.73점, 가장 높은 영역은 사회적 적응 3.33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평점은 2.79점으로 가장 낮은 영역은 과제 난이도 선호 2.79점, 가장 높은 영역은 자신감 3.26점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의 전체 평균평점은3.55점으로 가장 낮은 영역은 관계만족 3.06점, 가장 높은 영역은 인식만족 4.1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N=3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2.73±.65
	Social adaptation	3.33±.56
	Emotional adaptation	3.13±.71
	Physical adaptation	3.06±.58
	Attachment of college	3.25±.65
	Total	2.91±.52
Academic Self-Efficacy	Task hardness preference	2.79±.46
	Self control efficacy	3.25±.56
	Confidence	3.26±.75
	Total	2.79±.60
Department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3.25±.52
	Relationship satisfaction	3.06±.71
	General satisfaction	3.62±.58
	Recognition satisfaction	4.17±.61
	Total	3.55±.47

3.3 제 특성별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제 특성별 대학생활 적응은 남학생 군(t=-2.87, p=.004), 입학 동기로는 높은 연봉 군(F=2.41, p=.027), 교우관계에 매우 만족 군(F=16.67, p=<.001), 성적은 평점이 4.1 이상 군(F=4.39, p=.00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학생 군이 여학생군 보다는, 입학동기에서는 높은 연봉 군이 성적에 따

라서 입학한 군보다는, 교우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군이 불만족 군보다는, 1학년 1학기 성적에서는 평점 4.1 이상 군이 3.0이하 군보다는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남학생 군(t=-2.06, p=.040), 입학 동기로는 해외진출 군(F=2.16, p=.047), 향후 진로는 보건교사 군(F=2.86, p=.015), 교우 관계가 매우만족 군(F=3.16, p=.014), 성적이 4.1이상 군(F=5.53, p=.002)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학생 군이 여학생군 보다는, 1학년 1학기 성적에서는 평점 4.1이상 군이 평점 3.1~3.5군, 3.6~4.0 군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 전공 만족도는 입학동기로는 높은 연봉 군(F=3.25, *p*=.004), 교우관계에 매우 만족군(F=12.1, *p*=<.001), 성적이 4.1이상 군(F=5.12, *p*=.002)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 성별이 남학생 군이 여학생 군보다는, 교우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군이 불만족, 보통 군 보다는, 1학년 1학기 성적에서는 평점 4.1 이상 군이 3.0이하 군 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for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N=3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2.88±.52[b]	-2.87 (.004) a>b	2.76±.60[b]	-2.06 (.040) a>b	3.54±.45[b]	-1.47 (.142) a>b
	Female	3.10±.48[a]		2.94±.60[a]		3.63±.53[a]	
Type of Admission	Special quota	2.89±.54	0.22 (.880)	2.70±.54	2.58 (.054)	3.56±.47	0.76 (.517)
	Special extra quota	2.93±.53		2.83±.65		3.48±.53	
	General quota	2.93±.48		2.91±.63		3.56±.41	
	Genera extra quota	2.95±.55		2.87±.72		3.61±.49	
Entering Motivation	Employment	2.89±.50[ab]	2.41 (.027) a>b	2.68±.62	2.16 (.047)	3.49±.49	3.25 (.004)
	Profession	2.99±.53[ab]		2.82±.57		3.58±.42	
	Longing	2.95±.56[ab]		2.97±.51		3.72±.44	
	Recommendation	2.81±.51[ab]		2.84±.70		3.40±.47	
	According to grade	2.28±.48[b]		2.44±.52		3.31±.26	
	Overseas expansion	2.80±.34[ab]		3.04±.54		3.76±.57	
	High Salary	3.23±.57[a]		2.93±.78		3.92±.42	
Desired Work	Hospital nurse	2.92±.53	2.11 (.063)	2.73±.57	2.86 (.015)	3.56±.48	1.31 (.260)
	Health care teacher	3.08±.34		3.04±.72		3.47±.34	
	Public official	2.88±.48		2.75±.56		3.40±.39	
	Entered graduate	3.02±.34		3.17±.64		3.76±.38	
	Overseas	2.94±.57		3.02±.48		3.61±.46	
	Etc.	2.53±.52		2.87±.93		3.47±.58	
Religion	Yes	2.98±.51	1.48 (.140)	2.79±.58	0.12 (.905)	1.00±.49	1.54 (.125)
	No	2.89±.53		2.78±.62		3.53±.46	
Age	20~25yr.	2.91±.52	0.23 (.920)	2.77±.60	1.74 (.140)	3.55±.46	1.15 (.333)
	25~30yr.	3.00±.69		2.95±.72		3.61±.58	
	31~35yr.	2.98±.47		3.13±.64		3.45±.47	
	36~40yr.	2.87±.42		3.00±.61		3.14±.45	
	41yr.	3.05±.62		2.35±.24		3.84±.77	
Friendship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2.80±.65[bc]	16.67 (<.001) a>c	2.42±.75	3.16 (.014)	3.60±.46[ba]	12.1 (<.001) a>b
	Dissatisfaction	2.46±.57[c]		2.61±.41		3.30±.45[b]	
	Moderate	2.69±.47[bc]		2.68±.57		3.37±.44[b]	
	Satisfaction	2.98±.46[ba]		2.85±.58		3.57±.42[ba]	
	Very satisfaction	3.24±.51[a]		2.91±.68		3.84±.49[a]	
First semester grade	3.0 ↓	2.80±.47[b]	4.39 (.005) a>b	2.65±.58[b]	5.53 (<.001) a>b	3.42±.46[b]	5.12 (.002) a>b
	3.1~3.5	2.89±.51[ba]		2.81±.54[b]		3.57±.48[ba]	
	3.6~4.0	3.01±.55[ba]		2.78±.61[b]		3.60±.48[ba]	
	4.1 ↑	3.09±.58[a]		3.11±.73[a]		3.75±.33[a]	

a>b,c Scheffe test: Means with th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3.4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간 상관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223, p<.001), 전공 만족도(r=.342,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 만족도(r=.218,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for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r(p)	r(p)	r(p)
College Life Adaptation	1		
Academic Self-Efficacy	0.223 (p<.001)	1	
Department Satisfaction	0.342 (p<.001)	0.218 (p<.001)	1

3.5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 한계값(tolerance)과 분산 팽창인자(VIF)값과 잔차값(Durbin-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854~.970에, VIF값은 1.020~1.116에 분포되어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Watson 검증치가 1.978로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대학생활적응 모형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8.1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3.1%였다. 분석결과 전공 만족도(β=.245, p<.001)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	B	β	t	p
Gender	.024	.194	2.85	.005
Entering Motivation	.000	-.026	-1.41	.161
Friendship Satisfaction	.132	.164	5.68	<.001
First semester grade	.037	.079	2.96	.003
Academic Self-Efficacy	.041	.060	1.37	.171
Department Satisfaction	.244	.245	4.29	<.001
Adjusted R^2=.231, F=18.18, p<.001				

4. 고찰

대학 신입생 기간은 대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확보된 신입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간호학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평점은 2,91점으로,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Park[4]의 연구에서는 3.01점, Kim[5]연구에서는 3.37점, Cho[10]의 연구에서는 3.06점, Kwang[3]의 연구에서는 4.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의 2.90점과 유사한 점수이다[3].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응]은 2.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Kwang[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Cho[11]의 연구, Kim[5]의 연구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이다. 학업적 적응이 낮은 것은 본 대학의 입학자원 선발기준의 입학 전형이 매우 다양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학업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으나 기존 환경과는 다른 과중한 학습량, 학습방법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간호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적 요소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이란 대학에서 동료들과 학문적으로 또한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적응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1,18,15], 본 대학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4년제 대학으로 전문대학의 특성상 출신 고교나 연령이 일반대학보다는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학기별 3회 이상의 지도교수 면담과 전문상담사의 심리검사를 통한 학사지도, 입학과 동시에 선·후배 1 : 1 멘토멘티제도, 선후배 그룹 멘토링, 학과 전공 동아리 가입 등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효과인 것으로도 여겨진다. Lee[23]의 학사지도제도 이용자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학사지도제도는 자신감과 전공 확신 증가 및 개인의 능력발휘 기회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Lee[24]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멘토링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및 자신의 진로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사회연

결망 기능을 하며, Kim[25]의 대학생 대상으로 동아리 여가활동은 대학생활 적응의 만족도 향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 대상자들도 대학의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우 관계를 맺는 등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적응이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적응은 대학의 중퇴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이 되는데[26], 이는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인간 행동이 변화되어 대학이라는 삶에 적응하고 친구나 교수, 선배 등의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내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등 다차원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전략이 될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은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높은 연봉 때문이라고 한 군, 남학생 군, 교우관계에 만족하고 성적이 4.1점 이상인 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 내의 다양한 물리적, 인적 환경과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 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우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 방안이 시급하며, 이들을 조기 발견하여 적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평점은 2.79점으로, 이는 간호대학 1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3.22점[7], 1~4학년 간호 대학생 대상의 3.21점[27]인 결과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하위요인으로 [과제 난이도 선호]영역은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Kim[7]의 연구, Kim과 Park[2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간호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과제 난이도 선호]가 가장 낮은 연구 결과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 부담이 과중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엄격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7], 본 연구대상자들은 간호학과의 특성상 1학년에 개설된 교과목 중 교양 보다는 전공 개설 교과목의 비중이 높고 특히 전공기초 교과목 중 해부학과 생리학, 간호영어 교과목 개설에 대한 부담감과 각 교과목별 과제 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과제 수행의 목표나 맥락을 제공하여 난이도를 감소시켜서 흥미와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감]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특성별에서 향후 진로가 보건교사 군, 입학동기가 해외진출 군, 교우관계에 매우 만족하고 1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4.1이상 군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과제 수행에 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도 최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상호협력과 참여를 요구하는 학습 성과 중심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고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자신감은 취업 후에도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도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 만족도 평균평점은 3.55점으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전공만족도는 3.61점[12], 3학년의 전공 만족도는 3.76점[13]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이며[21], 전공 만족도는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와 대학 생활을 통해 경험된 사실들과의 부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위 영역별로는 [관계 만족]이 3.0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Cho[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교수에 대한 평가나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 등이 영향을 주는데[21] 본 대학의 교과과정 특성상 1학년부터 전공 공부로 인한 경쟁 심리와 한 학년 당 재학생수가 많음으로 인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이 대두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식만족]은 4.17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가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사회적인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 입학 동기는 [간호 전문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2.5%로 나타난 것과 같이, 간호에 대한 자부심과 간호전문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전문

직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5].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 대상의 Kim[1]의 연구결과, Song[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 변인으로서[1],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향후 간호사 업무 수행 및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중요하다[1,10]. 그러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 향상의 주요변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예측 변수로 전공 만족도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을 반영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교과 운영시 전공만족과 관련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16.2%의 설명력이 있었으며[19], 학과만족도는 간호 전문직관에 19.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13].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정도와 제 변수별 상관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대학의 수업연한 4년제 간호대학 신입생 전수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정도와의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는 성별, 입학동기, 향후 진로, 교우관계 만족도, 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수의 연구에서도 논의되었듯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크고 학습을 위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수-학생간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 성취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 체계 구성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간호 대학생들은 학업 부담감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있으나 간호가 전문직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른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였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신입생부터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학년별로 세분화되고 학생별로 적응 유형을 파악한 프로그램 적용과 간호대학 입학자원 중에 남학생수가 증가함으로 인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대학생활 적응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ngshin, Seoul, 2014.

[2] Lenz, A.S.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Mentors on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 17, pp. 195-207, 2014. DOI: http://dx.doi.org/10.1002/j.2161-1882.2014.00057.x

[3] Y. K. Kwang, “Effects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4]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76-158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5] Y. H. Kim, "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948-895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948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From: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

[7] Y. H. Kim,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after Practice Education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0, pp. 6176-618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176

[8]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yang, Seoul, 2013.

[9] Livsey, K. R. "Clinical Faculty Influences on Student Caring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vol. 13, no. 2, pp. 53-59, 2009.

[10] Federova, E.E.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Professional Activity While in College, *Russian Education and Society*, vol. 50, no. 4, pp. 75-82, 2008.
DOI: http://dx.doi.org/10.2753/RES1060-9393500406

[11]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12]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13] J.A.Cho & J.S.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87-59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14] Y. G. Kim,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Beginni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9, pp. 459-471, Sep.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9.53

[15] Ho-Seup Lee, Suk-Yeol Lee, "Effects of the Preferences for major and Expectations for the Teaching Profession on the Learning 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7, pp. 291-300, Jul.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7.41"

[16] S. U. Wi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ay and Helplessness behavior in learning situation according to peer relationship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9, pp. 277-286, Sep.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9.04

[17] S. H. Han, "Correlations of Ego Resilience and Self Efficacy in Pre-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7, pp. 117-129, Jul.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7.30

[18] R. W. Baker, B. Siryx,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19] E.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il, Seoul, 2014.

[20] A.Y. Kim, & I.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21]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A, Pusan, 2013.

[22]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National, Seoul, 1999.

[23] H.J.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ampus Life Adviser(CA) Client‐Focused on JEON-JU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Jeonju, Jeonju, 2014.

[24] Y.C. Lee, A Case Study on the Mentoring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as Mentee and Mentor,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ngkyunkwan, Seoul, 2016.

[25] G.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y among Students Circle and Satisfaction Degree of the College Lif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6, pp. 25-52, 2001.

[26] Gerdes, H. & B. Mallinckrodt.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2, no. 3, pp. 281-288. 1994.
DOI: http://dx.doi.org/10.1002/j.1556-6676.1994.tb00935.x

[27] S.H. Kim & S.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김 영 희(Yeong-Hee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